



행복한 섬김



(사)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
한국교회봉사단

2009년 12월호

주소 110-736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지동 136-46, 기독교회관 705호

전화 02-747-1225, 팩스: 02-764-1225

홈페이지 www.servekorea.org

대표회장 김삼환 단장 오정현 편집인 이상화



섬김을 통한 하나의 엔진되어

다시 찾은 서해안 위로와 사랑의 실천 목상하며

서해안 천리포 앞 바다 서방 8km 전방에서 일어났던 10,500톤의 기름유출사고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한국 최악의 환경사고였다. 이러한 국가적 재난 앞에 한국교회는 하나 된 응집력으로 탄생 시킨 한국교회봉사단을 통해 어느 누구보다 발 빠르게 대 사회적인 섬김의 모범을 보여 주었다.

모든 교단과 교회가 하나 되어 자원봉사자로 참여하였고, 재난현장에서는 섬김 사역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였다. 이후에도 주민 위로와 생태계 복원, 향후 대책을 마련하는 등 진보와 보수, 교단과 교파를 초월하여 모든 한국교회가 하나 되어 섬기고 섬김으로 하나 되는 참된 교회의 모범을 보여주었다.

다시 찾은 서해안 기름유출사고 현장.

평안을 되찾은 서해안 바닷가의 모습을 바라보며 2009년 12월, 섬김이 주는 큰 열매를 목상해 본다.





하나님이 하신일입니다

연합과 연대는 한국사회에서
교회의 사회적 위상을 높이는 주요한 계기가 된다

김삼환 목사 |
한국교회봉사단 대표회장

한국 교회를 향한 사회적 신뢰도가 높아졌다. 지난 11월 13일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지난해보다 한국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가 상승했다는 발표를 하였고, 그 이유로 한국 교회가 봉사하는 교회로서의 적극적인 모습을 꼽았다. 특히 2009년 5월 12일 통합 한국교회봉사단이 출범하여 "이름과 재해가 있는 곳엔 어디든지 달려간다" "섬김과 나눔 사역의 종합화로 한국 교회의 이미지 성숙을 위해 노력한다"는 기치를 내건 비전 선포는 한국 교회 봉사활동의 적극성과 하나 됨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고, 이로 한국 교회의 신뢰도를 제고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렇다. 2007년 12월 서해안 원유유출 사고로 한국교회봉사단이 태동하였다. 그리고 우리는 전무후무한 환경 재앙 앞에 한국 교회는 손과 발을 벗고 나섰다. 전국의 크고 작은 교회와 보수와 진보의



교리를 넘어선 초교파적인 참여로 현장에서는 교회차량과 교인들로 넘쳐났다. 방제작업 및 자원봉사 역시 조직적이며 체계적으로 사역을 수행했다. 현장 필요인력에 근거한 접수와 적정 현장에 대한 배치와 사전교육 및 사후 피드백까지 말이다. 숫자로 이야기하자면 전체 120만 명의 자원봉사자가운데 70% 이상이 교인들이었다는 것이 관계기관의 평가이다.

개별적으로 수행하던 것을 모으니 이렇게 엄청난 시너지가 생겼다. 우리가 배운 것은 봉사를 통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 연합과 연대는 한국사회에서 교회의 사회적 위상을 높이는 주요한 계기가 된다는 점이었다.

섬김 사역의 침병이 되어

우리의 연합된 섬김은 멈추지 않았다. 2008년 12월 24일, 노숙자들과 함께 거리의 성탄잔치를 펼쳤다. 우리사회에서 가장 약한 이들인 노숙자들과 성탄의 기쁨을 나누기 위함이었었고, 이것은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여 각 지역 교회들이 성탄의 기쁨을 들고 거리로 나아갔다. 또 서해안 원유유출 피해 현장인 태안지역 15개 교회는 생업을 잃고 허탈해하는 마을주민들을 대상으로 성탄잔치를 마련하여 마을 주민을 위로하고 다스림 희망 빛을 전했다.

금년 들어 전국 노숙인들의 급식과 쉼터현황, 전국 기독교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를 하면서 그 실태와 활성화 대책을 모색하였다.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전체 3,013개중 53%인 1,601개소가 개신교



에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풀어가야 할 과제가 상당수 발견되었다.

교회 자원봉사와 한국자원봉사계와 함께 지역사회에서 지역사회의 필요에 따라 연대하므로 교회와 자원봉사계 모두 윈윈하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지를 타진해 보는 자원봉사계와 연대를 시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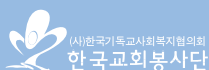
최근에는 필리핀의 태풍과 인도네시아의 지진에도 동참하여 식량과 생필품을 지원하는 긴급구호사역과 의료진료 나아가 2차 지원 사역까지 잘 감당할 수 있었다.

이처럼 복지문제 이외에도 여전히 진행 중인 우리사회의 대표적인 사회갈등의 현주소인 용산 참사의 중재에 나서 사회통합을 시도해 보았던 것도 매우 의미 있고 보람된 일이었다.

다양한 섬김 사역은 모두 한국 교회의 이해와 협조 없이는 불가능했다.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의 동원이라는 면 말고도 봉사를 통해 개별적이고 분절적인 한국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본 것이 가장 큰 소득이었다. 이 지면을 빌어 한국 교회에 감사를 전한다. 더불어 이면에서 역사해오신 하나님께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감사의 고백을 드린다. 앞으로 한국교회봉사단은 하나의 봉사단체가 되기보다는 한국 교회의 대사회를 향한 구호와 봉사를 매개로 하는 섬김 사역의 침병이 되자 한다.

하나 되어 섬기고 섬김으로 하나 되자

희생과 사랑 양보와 포용의 정신이 가득 넘쳐
꿈과 희망이 싹트고 열매 맺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모든 생명을 살리는데 앞장선 2009



사진 좌에서 우로 1. 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 제8차 정기총회가 덕수교회에서 열렸다 2. 한국교회봉사단 제2차 기획 위원회 회의
 3. 한국교회봉사단 한국기독교 사회복지협의회 통합결의 제2차 실행위원회 4. 한국교회봉사단 노숙인 실태조사 발표 및 토론회가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5. 태백기독교복 기독교대책위원회 현장상황실 개소식 6. 부활절연향예배 노숙인 무료급식을 열어 아픔을 달래주었다
 7. 태백생수지원을 위해 모인 자원봉사자들 8. 한국교회 섬김의 비전선포 준비 오찬간담회 9. 한국교회 섬김의 비전선포식 단체 사진
 10. 한국교회 섬김의 비전선포를 하고 있다 11. 한국교회 물사랑캠페인 행사 모습 12. 강원남부교회봉사단 창단식
 13. 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발표 및 토론회 14. 정선오시마을에서 일주일간 봉사활동을 하였다 15. 필리핀 태동 긴급구호활동을 통해 구호품을 나눠주고 있다
 16. 인도네시아 지진 긴급 구호 활동을 통해 구호품을 전달했다 17. 아시아재해구호성금 마련을 위한 생방송 18. 제2차 지회간담회 모습
 19. 한국교회봉사단과 지역사회변화 세미나가 열려 자원봉사자의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20. 제2차 임원회의 모습 21. 선한기사구급봉사단 출범식을 가졌다
 22. 서해안 피해주민 정신건강실태조사 발표 및 보고회 23. 거리의성탄절 행사를 통해 노숙자들과 기쁨을 나누었다.



마음 속 지워지지 않는 검은 얼룩

눈에 보이는 기름 덩어리는 모두 제거되었지만, 생태계와 지역주민의 상처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서해안의 검은 재앙이 있는 지 2년이 지나 시점에 눈에 보이는 기름덩어리는 모두 제거되었지만, 생태계와 지역주민의 상처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하지만 태안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잊혀진 곳이 되어가고 있으며 보상은 아직 끝이 없어 보인다. 이에 한국교회봉사단은 오상렬목사(기독교평화연구소장)와 성백결교수(백석대 기독교학부)와 함께 2개월간의 조사를 거쳐 피해주민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하였다. 사고가 난 지 2년이 지나고 있는 지금도 사건 영향은 여전히 주민의 생계와 일상생활을 힘들게 하고, 지역공동체에 부정적 변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드러났다.

태안주민들은 보상이 마무리된 이후에도 지역주민간의 관계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으며 생태계 복원, 지속적인 정서적 지원, 원유유출사고

가해기업의 진정한 사과와 관계회복프로그램을 위한 외부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양적조사에서 206건의 표본 설문조사 결과, 사건 이전과 가장 변화된 모습은 경제적인 어려움(41.3%)이었고, 정신적 스트레스(18%), 지역주민간 관계가 나빠짐(14.6%), 건강문제(4.4%) 순이었다.

특히 주민 소득과 관련해서 73%가 소득이 줄었다고 답하였다. 지역 주민간 사이가 나빠진 이유는 정신적인 스트레스(60.2%)가 가장 높았고, 잘못된 정보와 소문(41.3%), 각 직업에 따른 이해관계(34%), 공공근로 미성실(24.3%), 비양심적 행위(23.3%), 구호물품 분배과정에서의 소외(21.4%)순이었다. 필요한 외부지원을 묻는 질문에서는 생태계복원(26.7%), 지속적인 정서적 지원(20.4%), 가해자들의 사과



(18.9%), 관계회복프로그램(12.1%) 순으로 응답했다.

30명을 대상으로 한 질적조사에서는 피해 주민들이 여전히 몸의 통증, 정신 건강의 악화 등 후유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 주민들 개인 건강의 악화와 마음의 상처가 마을 공동체의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고 성교수는 말했다.

2009년 11월 30일 기준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에 청구된 피해보상건수 1만 229건 중 사정을 거쳐 보상지급완료 건수는 891건(약 900억원)에 이른다.

서해안 사역 내용

2007. 12. 7.	서해안 원유유출 사고 발생
2007. 12. 14~15.	한국교회봉사단 구성 협의
2007. 12. 21.	한국교회지도자의 방제작업 자원봉사
2007. 12.	한국교회봉사단 사무실 개소
2007. 12. 17~2008. 3. 31	방제작업 자원봉사(17만명) 현지주민 구호지역(쌀과 라면 등 생필품 지원사업 등)
2008. 1. 11.	한국교회봉사단 출범식
2008. 1 ~ 3. 31.	방제작업 자원봉사자 급식제공사업(80만여명)
2008. 5. 14~17.	생태환경국제회의 유치(충남대천 레그랜드 편비치 호텔) 피해지역 목회자 위로상담 프로그램 실시
2008. 5. 31.	피해주민연합위로잔치(만리포해수욕장 등)
2008. 7 ~ 8.	교회 여름수련회 태안 유치 캠페인
2008. 7 ~ 10.	목회자 위기상담과 갈등해소 지도자 워크숍(예정총회사회봉사부)
2008. 9. 1.	지역아동지원사업(의향. 만리포 지역아동센터 개소)
2008. 12. 4.	생태백서 발간(성백결교수/풍류출판사)
2008. 12. 7.	서해안 원유유출사고 1주기 기자회견(프레스센터)
2008. 12. 24.	서해안 바다마을 성탄잔치(15개 지역교회를 중심으로)
2009. 8. 31.	의향아동지원센터 지원종료
2009. 9.	생태사료 121종 1,953점 인수와 종합관리(신두리)
2009. 12. 3.	피해주민 정신건강실태조사(양적, 질적) 발표와 보고회 2009 피해주민 성탄잔치 성금전달



성명서

검은 재앙, 서해안 사태는 끝나지 않았다.

지난 2007년 12월 7일 오전 7시, 서해안 천리포 앞바다 서방 8km 전방에서 일어났던 10,500톤의 원유유출사고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한국 최악의 환경사건이 되었습니다. 서해안 가로림만에서 신안과 제주도 추자도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서해안 지역의 환경을 파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물량주의와 인간의 탐욕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었고, 생태계 문제에 무관심했던 한국사회와 한국교회를 향해 회개를 촉구하고, 창조질서보전 명령을 따라 환경선교에 동참할 것을 요청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생태적 회심을 담고 있었습니다.

한국교회는 하나 되어 이픔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국가적 재난 앞에 한국교회는 그 누구보다 즉각적으로 응답하였습니다. 모든 교단과 교회가 방재활동에 자원봉사자를 투입하였고, 재난현장에서 밥차를 운영하는 등 섬김 사역을 통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였고, 주민 위로와 생태계 복원, 향후 대책을 마련하는 등 진보에서 보수, 신학과 교리를 초월하여 남녀노소, 작은 교회에서 큰 교회에 이르기까지 한국교회가 하나 되어 동참하는 참된 교회의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서해안지역 주민들은 지쳐가고 있습니다.

서해안 사태 2주기를 맞고 있는 지금, 서해안은 더 깊은 신음과 탄식에 빠져 있습니다. 자연 생태계의 파괴는 해산물 감소로 인한 생활의 어려움으로 이어져 곧바로 주민들의 삶을 파괴하였고, 거대한 생태적 재

앙으로 인한 충격은 주민들의 마음에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기고 말았습니다.

사고 당시 저마다 충분한 보상과 해결을 공약했던 관계자들로 인해 더 많은 보상을 받고자 하는 착시와 착각은 인간성을 파괴하였고 나아가 마을공동체를 파괴함으로써 지역 사회를 초토화시켰습니다.

한국교회는 끝까지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간 한국교회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성심으로 태안을 섬겼습니다. 지속적인 섬김의 결과 한국교회는 봉사, 지원, 사후 대책 등 최선을 다했다는 지역 주민들의 공통적 평가를 받고 있어 다행스럽지만, 겉보기에는 멀쩡한 해안에서 기름이 완전히 사라지려면 얼마나 걸릴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치유는 고사하고 제대로 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생긴 주민들의 마음과 정신의 피해화, 생존의 고통이 아프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물지 않은 자연생태계의 상처와 주민들의 정신적 영적 상처를 어루만지는 일은 한국교회가 지속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교회는 근본적인 치유와 해결을 위한 일환으로 피해주민의식조사에 나섰고 대책을 마련하는 중입니다. 창조세계를 잘 돌보아야 하는 사명을 받은 우리는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을 위해 자연을 소중히 여기고 지역 공동체의 건강성을 위해 사회사업을 늘려갈 것이며 사태의 재발을 방

지하기 위하여 피해현장을 생태 산교육장으로 활용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의 적극적인 주민 피해보상대책과 기업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우리의 요구

1. 정부는 서해안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합니다

거대한 생태적 재앙을 입은 서해안지역 주민들을 위해 정부관계자들은 근본적인 피해보상 대책을 수립하여 조속히 실행하고, 이런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2. 사고의 책임자들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신속한 조치를 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번 사태를 일으킨 당사자들은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주민의 요구에 응하여 정신적, 물적 피해를 보상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피해주민을 위로하고 마을공동체를 회복하며 서해안 생태계 복원을 위해서도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3. 한국교회는 생태적 회심을 통해 지속적인 창조질서보전운동에 나서줄 것을 촉구합니다.

한국교회는 앞으로도 현지교회를 중심으로 서해안 생태계의 회복 및 지역 주민들 피해보상과 정상적인 삶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서해안사태에 대한 한국교회의 책임 있는 응답과 환경선교의 소중함을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2009년 12월 3일 한국교회봉사단

“자연을 아프게 하지 말기 자원을 헤프게 쓰지 않기”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생활 속 작은 실천입니다

디지털 수화성경 제작

30만 농아인들 말씀의 갈급함 채워줄 도구로



“주 여호와와 말씀이 아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와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암8:11)”

영혼구원의 사각지대를 극복한다

농아인은 한국 땅에서 태어나 한국인으로 살아가지만 음성언어가 아닌 상징 언어인 수화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로 현재 약 35만 명이 생활하고 있다. 농아인들에게 한글은 제 2외국어나 마찬가지이다. 이들은 말을 못하고 듣지 못하기 때문에 문자 매체보다는 수화를 사용하고 있다. 농아선교는 1946년 영락교회에 농아부가 처음 세워지면서 시작되어 60여년 지난 현재 전국 140여개의 교회에 8,000여명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는 전 농아인 대비 0.2%의 농아인이 성도가 된 것이다. 농아인들에게 문자성경은 외국어서적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이들의 모국어인 수화로 바꿔줘야 매일 경건생활을 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농아인들의 신앙생활을 보면 일주일 동안 주일에 한번 예배시간에 받는 수화설교가 전부이기 때문에 주중에는 말씀을 접할 기회가 없다. 그래서 이번 DVD가 제작되면 이것을 휴대폰과 네비게이션에 연결해서 평소 일상생활 속에서도 말씀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어 영적인 힘을 말씀 가운데 지속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일부 기독교 이단 종파에서 수화성경 DVD를 제작하여 보급하면서 이단 인구 확대를 꾀하고 있는 위기 속에서, 농아인들에게 올바른 기독교관을 심어주는 것은 물론 이단 단체로부터의 미혹을 방지하기 위

해서 수화 성경 DVD 제작과 보급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그래서 농아인들의 지·정·의에 적합한 커뮤니케이션 매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 이기에 수화성경 DVD를 제작·보급하여, 농아인들의 영혼구원에 주력하고자 준비하고 있다.

수화성경 보급 어디까지 왔나

세계 농아 선교사에서 복음의 사각지대였던 농아인을 위한 수화성경은 미국, 일본을 비롯한 여러 선진국에서는 찬송CD와 더불어 제작 보급됨으로 농아인 선교에도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농아인 기독교 인구는 이런 세계선교 추세와는 반대로 줄어들고 있다. 그 이유로는 여호와 의 증인 단체에서 농아인들의 입맛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이 이단 단체에서는 농아인들이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 있도록 아주 쉽게 수화성경을 만들어 보급함으로써 모든 농아인들이 수화성경을 접할 수 있게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다.

우리 한국 땅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와서 지금까지 선교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지만 농아선교에는 관심이 크지 않은 실정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농아인들이 복음을 듣고 100여명의 농아목사들이 배출되었지만 농아성도들은 정체내지는 감소되고 있음을 볼 때 선교의 시급성을 각성하게 된다. 상대적으로 이단보다도 못한 사역의 현

장에서 농아인들이 자신의 모국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게 해야 하는 이유는 개인의 영성 관리뿐 아니라 이단 단체의 확장을 막는데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된다.

수화성경연구원 발족, 농아인 선교의 초석 다져

수화성경의 제작을 위한 스튜디오, 카메라 등의 운영 장비 지원 필요



한국농아교회를 대표하는 농아목사 12명의 위원들이 매월 정기 모임을 통해 수화성경의 필요성을 나누고, 전국농아교회 뿐 아니라 비장애인교회에도 홍보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수화성경연구원을 운영할 조직을 구성했고, 여러 교회의 후원을 요청할 조직도 마련되고 있다. 11월 말에 개최예정이었던 수화성경 DVD 시사회 일정을 조정하면서 보다 구체적인 수화성경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수화성경은 창세기, 마태복음이 제작되었고, 나머지 성경도 수화성경으로 제작 중에 있다. 아울러 수화성경의 제작을 위한 스튜디오와 카메라 등의 운영장비를 위해서도 기도하며 뜻있는 많은 분들의 후원을 기다리고 있다.



사업내용

한 생명도 소중히

(사)선한사마리아인운동본부 선한기사구급봉사단 출범

생명사랑,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한국교회봉사단과 조직 통합을 염두에 두고 사역과 사무실을 공유하고 있는 (사)선한사마리아인운동본부에서는 2009년 11월 30일(월) 경기도 교통연수원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응급환자 살리기 운동의 뜻을 함께 하는 선한기사구급봉사단을 출범 하였다.

택시 기사들은 직업상 응급환자를 누구보다도 많이 접하게 되고 필요할 경우에는 활용할 수 있는 운반수단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택시기사들이 응

급환자를 도우려다 그 대가를 보상받지 못 할뿐만 아니라, 오히려 상해나 절도의 누명을 받는 일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모범택시기사들 112명은 아주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와 수원응급의료정보센터에서 실시하는 응급처치교육을 이수하여 생명사랑의 실천 앞장서고자 한다. 따라서 본 행사는 응급처치교육 후에 갖는 의례적인 교육이수식이 아니고 선한택시기사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구급봉사에 나선다는 결의를 다지는 행사였다.

택시기사 112명은 참석한 경기도정무부지사 및 경기경찰청장을 비롯하여 공공 및 시민단체 대표자들과 시민들의 축하와 격려를 가운데 교육 이수증과 함께 메달, 구급장비키트 전달을 받고 선한기사구급봉사단의 첫 발을 내딛었다.

선한기사구급봉사단의 활동으로 응급환자들도 도움을 받게 된다면 선한기사 스스로에게는 이웃사랑의 보람을, 사회에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함으로 이웃 사랑과 생명존중의 사회로 발전 될 것을 기대한다.



소외된 계층과 성탄의 기쁨 함께

한국교회가 함께하는 2009 거리의 성탄잔치

- 1. 일시 : 2009.12.24(목) 11:00~14:00
- 2. 장소 : 서울역 포함 전국 15개 지역 동시진행
- 서울역, 청량리역, 영등포역, 부산역, 대구역, 대전역, 수원역, 안양역, 전주 등
- 3. 내용 : 축하행사, 공연, 선물과 급식제공

노숙인들과 함께하는 거리의 성탄잔치가 열린다. 한국교회봉사단대표 김삼환, 단장 오정현은 오는 12월 24일 청량리역 등 전국 15개 지역에서 노숙인과 함

께하는 2009 거리의 성탄잔치를 개최한다. 이번 성탄잔치는 주님이 오심을 기뻐하는 성탄 전에 우리사회의 대표적인 약자인 거리의 노숙인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자리로 거리에서 겨울을 나아가는 이들에게 식사와 겨울용품 제공,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교회로부터 후원받은 방한복 및 겨울용품 등과 식사와 제공될 예정이며 서울역, 청량리역, 영등포역, 부산역, 대구역, 대전역, 수원역, 안양

역, 전주 등 전국 15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거리의 성탄잔치는 한국교회봉사단이 주최하고 한국교회봉사단과 거리의 성탄절 준비위원회가 주관하는 행사로 올해로 2째를 맞이하는 소외된 계층에게 성탄절의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행사로 자리 잡고 있다.



회원교회 이모저모



회비납부자 명단

가나다순서입니다.

★ 10월 회비

고명성 목사(추점교회)
 권태경 목사(영등은혜교회)
 기독교대한성결
 김동배 교수(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
 김득연 회장(동성진흥)
 김원호 목사(석삼침례교회)
 김정규 장로(선한사마리아인운동본부)
 김종생 목사(한국교회봉사단 사무총장)
 김준수 권사(천안하늘중앙교회)
 류중훈 교수(한세대 사회복지과)
 박종언 목사(예정합신 총무)
 박홍자 장로(한국기독교협의회)
 백태종 목사(강동교회)
 서재일 목사(원주영광교회)
 손달익 목사(사문교회)
 손인웅 목사(한국교회봉사단 이사장/덕수교회)
 송중완 목사(수원삼일교회)
 양해규 목사(수원중앙교회)
 어덕선
 오영택 목사(월드비전교회)
 오정현 목사(사랑의교회)
 오정호 목사(새로남교회)
 오진석 목사(하나성결교회)
 우창록 변호사(울촌법무법인)
 유인석 목사(과천소망교회)
 이경희(윤영노)전도사(하늘중앙교회)
 이동원 목사(지구촌교회)
 이만식 교수(장로회신학대학교)
 이봉관 회장(서희건설)

이순 목사(천양중앙교회)
 이은화 권사(경신복지재단)
 이재원 관장(종로종합사회복지관)
 장윤제(한미자) 목사(한국복지목회협의회)
 장현승 목사(과천소망교회)
 전성원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전문원 목사(석천광명교회)
 전현표 목사(상동사광교회)
 정명철 목사(도림교회)
 정성진 목사(거룩한빛광성교회)
 정우담 교수(예정총회 사회복지부)
 정필도 목사(수영로교회)
 조남선 사무총장(한국치매가족협회)
 조홍식 교수(서울대 사회복지과)
 지형은 목사(선략교회)
 추연호 목사(은파교회)
 황형택 목사(강북제일교회)

박종언 목사(예정합신 총무)
 박홍자 장로(한국기독교협의회)
 백태종 목사(강동교회)
 서재일 목사(원주영광교회)
 손달익 목사(사문교회)
 손인웅 목사(한국교회봉사단 이사장/덕수교회)
 송중완 목사(수원삼일교회)
 신망애교회
 양해규 목사(수원중앙교회)
 어덕선
 오영택 목사(월드비전교회)
 오정현 목사(사랑의교회)
 오정호 목사(새로남교회)
 오진석 목사(하나성결교회)
 우창록 변호사(울촌법무법인)
 유인석 목사(과천소망교회)
 이경희(윤영노)전도사(하늘중앙교회)
 이동원 목사(지구촌교회)
 이만식 교수(장로회신학대학교)
 이봉관 회장(서희건설)
 이순 목사(천양중앙교회)
 이은화 권사(경신복지재단)
 이재원 관장(종로종합사회복지관)
 이태훈 소장(수원동부성폭력상담소)
 장윤제(한미자) 목사(한국복지목회협의회)
 장현승 목사(과천소망교회)
 전성원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전문원 목사(석천광명교회)
 전현표 목사(상동사광교회)
 정명철 목사(도림교회)

정성진 목사(거룩한빛광성교회)
 정연철 목사(양산삼양교회)
 정우담 교수(예정총회 사회복지부)
 정필도 목사(수영로교회)
 조남선 사무총장(한국치매가족협회)
 조홍식 교수(서울대 사회복지과)
 지형은 목사(선략교회)
 최희범 목사(한국교회봉사단 상임총무)
 추연호 목사(은파교회)

★ 10월 11월 후원금(지정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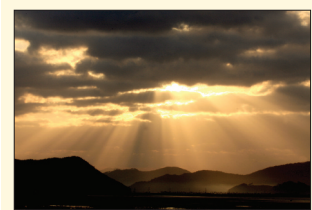
강북제일교회, 광주은광교회, 명성교회, 사랑의교회, 선한사마리아인운동본부, 우리들교회

★ 아시아재해구호성금 납부자 명단 (10/26-11/30 기준)

교회
 경주두레교회, 샘물교회, 수원중앙침례교회, 수인중앙교회, 순복음한일교회

개인
 박선숙, 홍현자

※ 이름(직함, 소속)이 잘못 기재되었거나 누락된분이 계시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무국(02-747-1225)으로 연락주시면 즉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지
 기정과 이웃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사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한국교회봉사단의 사명을 목상한다. 서해 태안 비닷가에서.
 사진=한국교회봉사단 남강호 집사(사랑의교회)

한국교회봉사단의 사업기금 마련을 위한 교회, 단체, 개인 회원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월회비 임원/이사/실행위원(20만원 이상), 중앙위원(10만원 이상), 회원(5천원 이상)

후원금 한국교회봉사단의 사업을 후원해 주실 분들은 액수에 관계없이 상시 후원가능합니다.

방 법

1. CMS(자동이체) : 02-747-1225로 연락하여 신청 바랍니다.
2. 온라인이체 : 신한은행 100-022-688472 예금주(사)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 한국교회봉사단 계좌로 송금 바랍니다.

※ 보내주시 후원금은 연말정산시 법인세법 제 24조 소득세법 제 34조 규정에 의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0기독교사회복지엑스포 준비위원회

위원장 : 장경준

위 원 :

김길규, 김동배, 김수지, 김종생, 박일연, 박종삼, 박천웅, 손인웅, 송중완, 유창춘, 이상화, 장현승, 정명기, 조홍식, 한상업, 최희범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우리의 두 발이 향합니다.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세상을 밝히는 성탄 트리처럼
 울고 있는 당신의 작은 빛이 되겠습니다.

까맣게 얼룩진 당신의 가슴과는 영원히 안녕,
 당신의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을 선물합니다.

성탄의 기쁨과 사랑을 함께 나누는 한국교회봉사단